

‘교린(交隣)’이라는 것

후나바시 요이치(船橋洋一)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전 수상이 행한 ‘한일교류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한일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장을 여는 사건이었다.

일본 측에 있어서 이와 같은 ‘한일교류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기반이 된 것은 1995년 교토에서 이루어진 ‘무라야마 전 수상과의 담화’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무라야마 전 수상은 처음으로 조선과 중국 측에 일본의 침략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하였다. 이것은 1964년 한일국교가 이루어진 이후, 한국과 일본 양국이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발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으며 우리는 이러한 무라야마 선언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한일교류 파트너십 공동선언’이후 10년간을 되돌아보면 한일관계에 있어서 무언가 놓쳐버린 기회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그것이 조금이라도 실현되었다면 다른 차원, 이른바 한단계 높은 차원의 한일관계를 구축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방금 김대중 전대통령께서 오부치 전 수상을 언급하면서 ‘오부치 정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나는 ‘오부치 정신’, ‘오부치 구상’의 특징은 ‘촌탁(村度)’을 중요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 사람의 마음을 짐작, 배려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오부치 정신’, ‘오부치 구상’을 기반으로, 오부치 전 수상은 ‘트렌스 내셔널적인 관계’ 구축을 지향, 6자 회담 실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시 클린턴 정권은 이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결국 실현되지 못하였다. 더욱이 고이즈미 전수상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로 인하여 한국은 일본측에 실망을 하게 된다. 결국, ‘촌탁(村度)’을 중요시하는 오부치 정신은 전후(戰後)정신으로서 자리매김하지 못한 채 끝나버린 것이다.

최근 동아시아 관계, 나아가 전 세계 각국의 관계에 있어서 ‘교린(交隣:인접 국가와의 교류)’의 중요성은 더욱 더 부상되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교린’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오부치 정신’과 같은 상호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가 요구되는 것은 아닐까 한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외교’적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역시 진정한 ‘교린’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빌리언 파워’, 즉 시민의 힘이 요구될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생각하면 1998년 이후 이루어진 ‘일본대중문화개방’은 한일교류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준비나 연출의 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점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야말로 양국에 있어서의 정치, 외교적 측면 뿐 아니라 모든 일반 시민의 레벨 및 문화적 영역으로까지 교류가 확대되어 그 결과도 창출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양국 관계, 미래의 한일관계, 일한관계를 보다 나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역적인 확대, 나아가 세계적, 글로벌한 확대 속에서 양국간의 교류를 심화시켜 나가야만 한다. 이와 같은 양국의 ‘교린’을 위해서는 ‘문명’이라는 개념을 도입시킬 필요가 있으며, ‘문명공동체’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일관계의 강화, 협력은 보다 성숙한 형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隣交」ということ

船橋洋一

1998年、金大中大統領と小渕元首相が行った〈21世紀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共同宣言〉は日韓関係において新しい場を切り開く事件であった。

日本側において、このような〈21世紀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共同宣言〉の基盤になったのは、1995年京都で行った「村山元首相談話」だと言える。ここで村山元首相は公式的に始めて朝鮮・中国側に日本の侵略を認め、「お詫び」したのである。これは、1964年日韓国交が結ばれて以来、日韓が真に互いを理解し、発展する重要な契機になる出来事であり、我々はこのような村山宣言の重要性を再度認識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しかしながら、〈21世紀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共同宣言〉以降の、ここ10年間を振り返ってみると、日韓関係において何か失われた機会があったのではないか、それが少しでも実現されていたならば、次の次元、より高い次元の日韓関係が築けた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ことがある。

先ほど金大中元大統領が小渕恵三元首相について話された折、「小渕精神」という言葉が使われたが、私は「小渕精神」「小渕構想」の特徴は「村度」を大切にすることだと考えている。即ち、人の言うことをよく聞き、その人の気持を村度する、思いやることである。このような精神を基にして、小渕元首相は「トランスナショナルな関係」を築くことを目指し、6者交渉を実現することを提唱した。

しかし、当時のクリントン政権は関心を示さず、それは結局、実現されなかった。さらに、小泉元首相が靖国参拝をしたことによって、韓国は日本に失望してしまった。結局「村度」を大切にする「小渕精神」を戦後精神として活かすこと

ができないままになってしまったと言える。

近年、東アジアの関係、ひいては世界諸国の関係において「隣交」ということの重要性が一段と浮上しつつあるが、その「隣交」のためには、まさに「小渕精神」のような、お互いの立場を理解し合える態度が要請されるのではなかろうか。しかし、これを単に「外交」という側面から捉えるのは不十分であり、やはり真の「隣交」を果たすためには〈シビリアンパワー〉、市民の力が必要となるであろう。

そのような側面から考えると、1998年以降の〈日本大衆文化開放〉は日韓交流史において重要な意味を有する事件であった。にもかかわらず、それに対する準備や演出がやや足りず、その重要性が多くの人々にさほど認識されないままであったことは残念と言わざるを得ない。それこそ、両国において、政治や外交の面に局限せず、市民一般レベルや文化の領域にまで交流が広がり、その結果が生み出されるよい機会ではなかったかと思うがゆえである。

今後の両国関係、未来の日韓関係・韓日関係をより高い次元に高めるためには、地域的な広がり、さらには世界、グローバルな広がりの中における両国の交流を深め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ような両国の「隣交」のためには「文明」という概念を持ってくる必要があり、その「文明共同体」のインフラを構築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う。そうしてこそ、日韓の関係強化、協力はより成熟したものとなる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